



강의실 문을 열고 나올 때면, 백화점 향수 코너보다 더 진한 자연의 향기가 가슴속으로 확 파고들었습니다. 이름 모를 꽃과 풀, 나무들이 뿜어내는 향연은 공부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보냈죠. 공원에서 마주치던 도마뱀과 새들, 모든 것이 살아 숨 쉬는 대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.





휴일이면 우리는 '세븐
브리지스 워크'에 참가
해 시드니의 속살을 걸
어서 탐험했습니다. 7개
의 다리를 건널 때마다
지도에 도장을 받으며,
우리는 차로는 볼 수 없
었던 도시의 아름다운
구석구석을 발견했습니
다.



"우리 같이 달려볼까?"
달리기를 좋아하지 않는
아내를 설득해 '시티 투
서프' 마라톤에 함께 참
가했습니다. 시드니 시
내에서 본다이 비치까
지, 가장 아름다운 해안
도로를 수많은 사람과
함께 달리는 경험은 정
말 특별했습니다.



14km를 완주하고 본다이 비치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은 엄청났습니다. 하지만 진짜 힘든 건, 결승점을 지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던 끝없는 모래사장이었죠.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첫 완주의 기억을 공유했습니다.



박사 학위가 끝나고, 우리는 시드니를 떠났습니다. 아이들이 부모 없이 2년을 보냈던 추억의 도시이기도 한 이곳. 비록 몸은 떠나왔지만, 그곳의 햇살, 자연의 향기, 함께했던 도전의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푸른 풍경으로 남아있습니다.